

‘사람·생태·문화’ 김승수 전주시장 퇴임

8년 동안 시민 삶 촘촘히 챙기고 도시 정체성 키우는 데 힘 쏟아 퇴임사 통해 전주 발전 함께 힘써온 시민·청원에 감사의 뜻 전해

민선 6·7기 전주시정을 이끈 김승수 시장의 퇴임식이 지난 6월 30일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강당에서 진행됐다. 김승수 시장은 ‘사람, 생태, 문화’라

는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전주다움’이라는 전주만의 저력에 역량을 집중해 민선 6기와 7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민의 삶을 촘촘히 챙기고 도시의 정체성을 키우는 데 힘을 쏟

았다. 김 시장의 민선 6기 첫 결재사업인 ‘밭 굽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밭상’은 전주를 대표하는 복지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

다.

60년 넘도록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은 이제 예술과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선미촌과 더불어 폐공장에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는 도시재생 대표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전주역 앞 철마중길도서관과 다기여행자도서관, 확산숲속시집도서관, 시청 책기둥도서관,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등은 대한민국 도서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국가관광거점도시와 수소경제시범도시, 통합돌봄 선도도시 지정을 이끌어내며 전주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과 드론축구 활성화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을 선도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주형 재난기반소득, 착한임대인운동,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 선도적인 혁신정책으로 전주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퇴임식에는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사람, 생태, 문화’라는 가치로 지난 8년 동안 시정을 이끈 김 시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도 이날 시청을 찾아 김 시장에게 꽃다발을 전한 뒤 잠시 환담을 나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퇴임사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주신 한 분 한 분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면서 “다시 용기와 연대의 힘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민선 6·7기 전주시정을 이끈 김승수 시장의 퇴임식이 지난 6월 30일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강당에서 진행됐다.

하절기 방역소독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보건소, 각종 감염병 매개체 유해해충 박멸 위해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본격적인 여름철은 앞두고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지카 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등 유해해충 박멸을 위해 ‘2022년 하절기 방역소독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운영할 방역가동반(2개반 4명)을 편성한 보건소는 유충의 주요 서식처인 정화조와 복개하천 등 민원 발생지역에 유충구제 약품을 살포하고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방역소독에는 △방역정비 137대 △방역차량 10대 △포종기 337대가 투입된다.

보건소는 환경적·지리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역을 위해 9월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1~2명씩 총 55명의 방역소독 근무자를 배치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의 하수구와 쓰레기 수거함 등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소독 근무자는 만성지구와 예코시티, 효천지구, 혁신도시 등 대단위 아파트 지역과 도심 내 하천, 구도심 등에 배치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초미립연무소독을

하게 된다. 보건소는 이와 함께 위생해충의 자율적인 방제를 위해 전주시에 게 휴대용 분무기와 약제를 7일간 빌려주는 한편, 127개 공원 내에 설치된 포종기를 가동해 공원 지역 내 친환경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현재 진드기나 모기로 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27대를 가동하고 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작동 버튼을 누른 후 분사기의 손잡이를 당기면 자동으로 분사되는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하절기 방역소독에 철저한 대비로 감염병 발생 예방과 시민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고, 만약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평생학습 강사은행 회원 등록하세요”

전주시, 4일부터 평생학습강사 대상 온라인 접수

전주시는 평생학습강사와 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전주시 평생학습 강사은행’ 회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강사은행이란 전문성과 자격요건 등이 검증된 평생학습강사와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평생학습강사와 강사를 희망하는 수요처를 일대일로 연결해 평생학습사이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수요처에는 강사 및 교육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강사은행의

운영 취지다. 강사은행 등록을 희망하는 평생학습강사는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전주시 평생학습 강사은행은 궁극적으로 전주시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 강사와 기관·단체 등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민주당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

의장 후보 이기동 부의장 후보 이병하

제12대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지난 6월 30일 원내교섭단체를 대표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선출했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 29명은 이날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의장단 후보 선출 투표에서 이기동 당선인을 신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기동 의원, 이병하 의원, 김동현 의원, 정성림 의원, 이남숙 의원, 송영진 의원, 박선전 의원

또 부의장에는 이병하, 운영위원장 김동현, 행정위원장 정성림, 복지환경위원장 이남숙, 문화경제위원장 송영진, 도시건설위원장 박선전 당선인이 각각 후보로 확정됐다.

이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당선인들은 4~6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출마해 전체 의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최용철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내 선거 과정에서 치열했던 경쟁을 뒤로하고 12대 전주시의회를 이끌어갈 민주당의 동반자들”이라며 “앞으로 힘을 모아 전주시 발전을 이끌어간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확대 실시

만 12세 여성→만 13~17세 여성·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확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백신인 HPV2가(서바릭스)와 HPV4가(가다실) 무료접종을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HPV 감염증 예방접종 국가지원대상은 기존 만 12세(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에서 올해 3월 14일부터 만 13~17세(2004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1995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 저소득층 여성으로까지 확대됐다.

예방접종 백신은 HPV 2가·4가 백신 두 종류다.

HPV 2가 또는 4가 백신을 처음 접한 연령이 만 12~14세인 여성은 1차 접종 기준으로 6~12개월 이내

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1차 접종 연령이 만 15세 이상이면 총 3차례 접종을 해야 한다.

HPV 2가 백신은 첫 접종 후 1개월, 6개월 간격으로, HPV 4가 백신은 첫 접종 후 2개월, 6개월 간격으로 해야 한다.

접종은 전주시 지정위탁의료기관 110여 곳에서 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이미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남은 접종 횟수를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여성은 기존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해당된다.

접종 당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를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통해 조기에 질환을 예방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CBS 규탄집회 열어

CBS 전북방송 본사 앞 대규모 시위

신천지예수교 도마피자는 지난달 30일 최근 한 성도가 전 남편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편파·음해성 보도(18일자 노컷뉴스)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CBS 전북방송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도마피자 성도 3,000여 명이 참여해 “강력규탄 CBS해체, 개종목사처벌, 노컷뉴스폐쇄” 등 구호

를 외치며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집회에서 이재상 도마피자장은 “CBS 노컷뉴스는 살인을 옹호하기 위해 원인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고 종교 때문인 것처럼 왜곡했다”며 “(해당 기자)가해자에게 ‘신천지에 빠져서 자녀와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하는 유도질문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마치 살인행위

를 종교 때문인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신천지예수교회를 대상으로 특별이 강제개종 사업을 벌이는 기성 교단 소속 이단 상담소 목사들도 언급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의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후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성명서도 배포했다. /김윤상 기자



신천지예수교 도마피자는 지난달 30일 최근 한 성도가 전 남편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편파·음해성 보도(18일자 노컷뉴스)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CBS 전북방송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전주시, 2024년까지 노후 상수관 정비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새는 수도물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국비 253억 원과 지방비 231억 원 등 총 사업비 484억 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인천지역 적수사고 발생 이후 정부 정책으로 국비 50%를 지원 받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상수관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블록시스템 구축은 상수도 관망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수도시설을 일정 규모와 구역으로 블록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노후 상수관

정비는 누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암과 인후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부터 이 두 곳의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개량해 60.5%인 누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와 수자원공사는 이들 급수구역의 누수 상태 등을 파악해 노후 상수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장병호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통해 새는 수도물을 잡고 유수율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주택가격 상승요인 남았다... 전주시, 조정지역 유지

전주지역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주가 제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당시 시는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됐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회는 시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조정지역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로써 당분간 전주는 조정지역

이 유지돼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득세 등 규제가 유지된다.

이에 대해 시는 정부가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기초를 취했고 여기에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주가 여전히 잠재적 주택 매수세가 존재해 가격 상승요인이 있다고 정부가 분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조정지역 해제를 위해 주택거래량과 주택매매가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오는 12월 예정된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